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3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에서 프레오픈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이날 프레오픈에는 전국의 미술교사와 미술대학 교수들이 참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현대미술의 거대한 흐름이 한눈에"

제7회 광주비엔날레 프레오픈

작품 공개 때마다 환호·감탄사

07 연례보고 08

"주제 없는 비엔날레여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3일 프레오픈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제7회광주비엔날레(5일~11월 9일)가 전국의 미술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성공비엔날레를 예고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형식의 작품에 관심을 보였고, 도슨트 배치 등 전시 준비 과정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프레오픈이 열린 3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에는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교사와 미술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시 공간인 시립미술관, 대인시장, 의재미술관, 광주극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작품이 한 점 한 점 공개될 때마다 감탄사를 터뜨렸다.

안양 석수시장 대안예술공간 '스톤앤워터'의 박찬응 대표는 "좋은 작품이 무척 많다. 주제가 없어서 그런지 작품마다 성격이 확실히 구분된다. 과거의 광주비엔날레에 비해 수준도 높고 눈여겨봐야 할 젊은 작가들이 많은 게 큰 특징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이재영 사무팀장은 "실험성 강한 작품이 많았지만 도슨트의 설명이 친절하고 작품 안내 책자가 풍부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광주비엔날레가 대인시장,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등 광주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대표하는 장소를 전시 공간으로 정한 것은 참신한 기획이다"고 호평했다. 설치 작가인 제스미나 호베(Jasmina Llobet·스페인)씨는 "한국의 전통미술가인 허백련과 실험성 강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한 장소(의재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고 말했다.

반면 전시장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은 개막 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서양화가 조근호씨는 "영상작품들이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 전시됐는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단체 관람객들이 밀려들기 전에 전시장 환경을 완벽하게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차례 국내외 언론인과 미술평론가 등을 대상으로 프레오픈과 프레스 오픈을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린시절 '기억의 흔적들'

강태웅 뉴저지 초대전 20일까지 열려

기억의 흔적들

광주 출신으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강태웅씨가 미국 뉴저지의 갤러리 옴즈에서 오는 20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기억의 흔적들(Vestiges Mutual Memorie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씨는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표현한 작품들을 보여준다.

그는 직접 제작한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신문지를 붙여 제작한 자신만의 독특한 캔버스에 자연의 형상을 닮은 도자기를 부착하는 작업세계를 추구한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나무와 흙, 종이는 자연친화적인 소재일 뿐 아니라 어린 시절 즐겨 가지고 놀았던 놀이기구이기도 한다. 캔버스위에 도자기를 조립하는 과정은 순수한 아이의 마음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식의 파편들을 상징한다.

강씨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한 작업과정은 자연으로 동화되고 싶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서 "자연으로의 회귀는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광주 진흥고를 거쳐 중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바니아 블룸스버그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중앙대와 전남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아름다운 미술관 가는길'(보성미술관), '제12회 현대미술한일전'(도쿄 오노갤러리) 등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현재 (사)에뽀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청소년연극제 광주 예선 4팀 경연

4~7일 남구 문예회관

지난 2007년 최우수 수상작인 광주 살레시오여고의 '작은 아씨들'.

'제12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 및 제19회 광주학생연극제'가 4~7일까지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박규상)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는 청소년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지역 대표 선발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작품과 공연일정은 광주 동신여고 팀의 '한 여름밤의 꿈'(4일 오후 5시), 광주 정보고 팀의 '해가 지면 달이 뜨고'(5일 오후 7시), 광주 전남여고 팀의 '하녀들'(6일 〃), 광주 전남여상 팀의 '방황하는 별들'(7일 〃) 순이다.

이번 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오는 10월 서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청소년 연극제'에 광주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전국청소년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 대산문화재단, 예술의전당이 주최하며, 고교 연극반을 대상으로 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연극축제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예진흥기금 사업 대폭 지방 이관"

유인촌 장관, '새 정부 예술정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크게 바꾼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지방협력형 사업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 사업 가운데 신진예술가 지원, 지역문예기금 지원, 서민계층 풀뿌리 문화나눔 사업 등을 지역으로 이관하거나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규모는 문예진흥기금 총사업예산의 32%인 248억원에 해당한다.

문화부는 공연예술계의 피부에 닿을 사업방식으로 대본, 쇼케이스, 작품 제작, 재공연 등 단계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창작팩토리 제도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중앙-지방간 협력에 이어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학 입시 가이드 북

'엄마는 전략가' 발간

공부만 잘한다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학입시도 정보싸움이다. 다양한 특별전형에다 대학별 전형방식도 달라 입시요강을 꼼꼼히 살펴야만 입시준비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민성원씨가 구체적인 입시준비 방법들을 정리해 '민성원의 엄마는 전략가'(예담)로 펴냈다.

책은 '내 아이를 위한 명문대 입학 로드맵 짜기'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엄마가 정보력을 키워 자녀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짜야만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왜 부모의 전략이 필요한지, 2부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입시제도를 분석했다. 이어 3부와 4부에서는 과목별, 자녀에게 맞는 로드맵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저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이의 적성과 성향, 거주지, 학교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